

하루를 시작하며



고 나혜
시인

제주도 땅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옹머리해안의 가치는 비단 120만 년이라는 연대를 거쳐 온 지질학적으로 뛰어나고 자연 유산적 가치를 지닌 것만으로 보기엔 한참 부족한 듯하다. 인근에 남아 있는 사람 발자국 화석으로 보여지는 인류학적 가치만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있는 그대로 보존해야 할 고대 유물 유적인 것이다.

옛 제주인들은 이곳 옹머리해안을 왕후지지라 일컬으며 걸출한 인재를 배출해 낼 수 있는 정기가 서려 있는 땅이라 여겨 다양한 전설

기후변화 때문에 옹머리해안이 잠긴다는데

을 구가했던 터였다.

오른쪽으로 보면 그 모양이 옹의 형태와 비슷해서 미래의 황제가 태어날 곳으로 여긴 중국의 황제가 혈맥을 자르라고 풍수사를 보냈던 곳이라고 옹머리의 목쯤으로 보이는 곳에 나 있는 단층 구조를 그 근거로 들기도 했는데, 언제나 이런 이야기의 중심에는 미래의 후손을 염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깃들어 있다.

사실 이 일대에 얽힌 역사적 의미까지 끄집어내다 보면, 옹머리해안과 연결된 산방산의 굴은 고려시대 시승으로 뛰어난 해일이 수행하던 곳이고, 조선시대 인근 마을 대정에 유배 생활 중이던 추사가 자주 찾던 곳이며, 현대 세계 최다 박사학위 취득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서경보 스님이 출가수행을 한 곳으로 알려져 그 인문학적 가치 역시 제고 할 만하다.

이런 옹머리해안의 높은 가치도

지금 인류세의 기후변화인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는 바람에 어떠한 지구책도 마련될 겨를 없이 바닷물 속에 속수무책으로 잠기고 있다.

기상청에 의하면 제주도 해수면은 근 40년간 약 24cm 상승했고, 옹머리해안 종일 관람일수도 점차 줄어들어 2011년에는 214일로 한 해 중 58.6%였던 것이 2018년에는 63일로 17%, 2019년에는 75일로 20.5%, 2020년에는 42일로 11.5%, 2022년에는 34일을 기록하며 한 해 중 10.8%라는 방점을 찍고 말았다.

옹머리해안 해수면 상승은 온실가스 저감 없이 현재 상태로 배출되는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로 예측해볼 때 1989년 기준으로 보면 2050년에는 48.9cm, 2100년에는 105cm 상승한다.

현재 해수면 상승으로 미치는 영

향은 태풍이나 홍수로 인해 2030년 한반도의 5% 이상이 물에 잠기고, 332만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블루카본인 해양생태계의 탄소 흡수 속도는 육상생태계보다 50배 이상 빠르고 그 양도 5배가 넘기도 하거나 수천 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작업을 서두르는 추세다. 온실가스 저감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저탄소 시나리오 RCP 4.5 정도만 가게 되더라도 21세기 후반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않을 않을 것이다.

한편 제주도 해안 쓰레기 배출량도 2021년 2만 톤이 넘는 조사 결과를 보였다 하니 우리 모두 주객을 넘어서 쓰레기를 줄일 줄 아는 사람의 가치부터 찾아야 마땅하다.

사설

제주경제 활로, 관광시장 활성화에 달려

제주경제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쓰나미' 위력은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다. 펀더멘털이 취약한 제주경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로 인해 제주경제 각종 지표는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향후 제주경제 전망도 녹록지 않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고용 감소와 소비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제주경기는 작년 4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렌터카, 특가호텔, 골프장 업종 중심이어서 성장세가 둔화됐다. 건설 투자는 전 분기보다 소폭 줄었지만 감소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미분양주택은 1780호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출하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에다 전 기로·면세유 가격 상승이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2월까지 내국인 관광객은 205만8086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6.2%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1월 1만584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6.3% 증가했다.

앞으로 제주경제 명암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좌우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과 바닷길이 열리면 제주경제에 서풍을 비추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과 팸투어 강화해야 한다. 또 외국인 관광시장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주형 면세점 개점 등 관광 편의를 위한 수용태세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열린마당

따뜻한 나눔 재능기부, 나눔 더하기



백 은숙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개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나눠 주는 일을 '재능나눔'이라 말한다.

제주도는 장년층의 사회 참여 욕구 해소 및 사회공헌활동 실천의 하나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장년층을 대상으로 '재능나눔 활동가'를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4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은 크게 4개의 분야로 우선 교육·상담 활동 분야는 방과후교

육, 학습지도교육, 취미교육, 디지털교육, 독서지도 및 독후활동, 멘토링, 진로 적성상담 및 컨설팅 분야가 있다. 다음으로 생활 지원, 기관업무지원, 사회봉사 활동, 시설 및 주거환경관리, 시설·장비 보수, 각종 기능 전수, 각종 책·자료 집 제작 지원 등 나눔 활동 분야가 있다.

세 번째로는 문화·예술 활동 분야로는 문화공연 활동, 행사 진행 보조, 관광 안내, 사진 촬영,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동 영역이 있다. 마지막은 캠페인·실천 활동 분야로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 청소년 안전, 취약계층 안전, 지역 안전, 환경정화 및 감시, 공익 보호, 인식개선 등의 분야가 있다.

재능 나눔을 통해 제주를 살아가는 장년층의 삶이 더욱 활기차게 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학폭 심의 증가 대비해 위원 수 늘려

교사·변호사 인력 보장

자치경찰단장 인선 주목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최근 3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2023학년도에도 관련 심의 건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신규 심의위원을 추가 위촉.

28일 서귀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인력을 보강한 심의위원들은 교사, 변호사들로 종전 41명에 4명을 더해 총 45명으로 전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서귀포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고 관계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폭력 초기 대응부터 심의위 조치 결정까지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전선희기자

○...오영훈 제주도정의 맞춤형 치안 복리 서비스를 총괄 지휘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인선에 관심이 집중.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최근 자치경찰단장 공모에 응모한 2명(도내 출신 1명·도외 1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시험을 마무리함에 따라 후보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종 임명권자인 오 지사에게 추천할 예정.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기 때문에 제주 실정을 잘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신임 단장은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모범적인 전국 모델을 찾아 내는 선봉장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

고대규기자

제2공항 도민경청회, 요식행위 안된다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경청회를 갖는 등 현장에서 의견 수렴에 본격 나섰다.

제주도는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한 첫번째 도민경청회를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 도민경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용역진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이 이뤄진다. 2·3차 도민경청회는 4월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과 4월 24일 제주시 농업인회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2공항에 대

한 도민 의견을 오는 5월 8일까지 제주도·행정시 누리집(홈페이지), 43개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 등을 통해 수렴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경청회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가감없이 국토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통과시킨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이 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류 서식지 훼손 우려는 물론 민 의견을 듣기 위한 첫번째 도민경청회를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한다. 도민경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용역진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이 이뤄진다. 2·3차 도민경청회는 4월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과 4월 24일 제주시 농업인회관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2공항에 대

부 고

김석송·석종(前 제주과학고등학교 교사)·석만 어머니 고부이씨 하숙(향년 91세)께서 서귀 2023년 3월 27일 오후 5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3년 3월 29일(수요일)
▶ 발인일시: 2023년 3월 30일(목요일) 오전 8시
▶ 발인장소: 하귀능협장례식장 302호 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김 석 송 며느리 김 하 은
석 종 진 영 여
손 자 김 병 문 손 부 이 신 향
병 관
손 녀 김 명 신 손 서 흥 정 기
지 혜 고 동 석
수 연
수 진

※ 연락처 : 김석송 010-2422-6821
김석종 010-2682-7481
김석만 010-3693-5632
진영여 010-9966-7481

차고지/주차장

市の 자기차고지갯기사업
* 市 지원 90%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갯기사업 *
No.1 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리수/하자보수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항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층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투데이)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점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집중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점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략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 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점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비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펜션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